

## 30대 여성의복의 치수적 합성을 위한 연구

홍수숙 · 류경옥 · 서미아

한양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오늘날 여성은 고학력화와 더불어 여성 전문직 비율 증가, 직장에서의 승진기회 확대, 소득 증가, 미혼여성의 급증, 결혼 연령의 증가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사회참여의 기회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중에 기혼 여성은 가정용 전자제품의 발달로 육아노동 및 가사노동의 감소 및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미혼여성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 20대 청년기를 지난 바로 다음 세대인 30대 여성들은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의복 구매 시 자녀와 남편을 중심으로 구입하고 자신의 의복은 거의 구매하지 않던 과거 시대와는 달리 본인의 사회참여 및 만족을 위하여 의복을 구입하기 시작하였고, 20대의 의복 취향과 비슷하지만 20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안정을 가진 30대여성은 의복의 실질구매력이 높은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30대를 위한 의복의 기획 및 생산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명숙은 30대가 체형의 변화가 시작되는 연령층이라고 하고, 심정희는 30대 이후 여성들의 높이항목이 감소하고, 허리와 가슴·배 및 진동과 상완 등의 둘레항목이 증가됨에 따라 허리와 배가 비대해지고, 윗팔이 굵어지며 가슴이 늘어지거나 엉덩이가 처지는 등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 체형의 변이가 특성화되기 시작하여 30대의 체형 변화로 유년기에서 청소년기의 변화나 중년기에서 노년기의 변화만큼이나 급격한 수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성복 업체에서는 업무의 편이를 위해서 젊은 여성을 피팅 모델로 선택하기 때문에 30대에 적합한 의복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천종숙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조영아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상품 기획의 경우 생산 효율성, 재고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착용자의 출현빈도가 높은 사이즈를 중심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인여성의 기성복 치수적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의복생산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치수 체계가 연령별 신체특성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30대의 의복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불만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30대 여성들의 체형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치수제안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신체 항목 중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들을 밝히고 이를 30대 여성복의 패턴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의 기초 자료를 20대와 30대로 집단을 나누고, 신체항목 중에서 치수 만족도와 패턴 설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체와 하체에 관련되는 54개 항목을 선택하여 20대와 30대의 두 집단 간 t-test를 하였다. 분석에는 SP-SS version 11.5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총 54개의 분석항목 중 95% 신뢰구간에서 43개 항목, 99% 신뢰구간에서는 40개 항목, 99.9% 신뢰구간에서는 32개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결과를 분석하면 높이항목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장의 경우 30대는 평균 157.920cm, 20대는 평균 160.094cm를 나타내어 그 평균치에서 매우 뚜렷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01$ ). 또한 어깨높이, 허리높이, 엉덩이밑높이, 손끝높이, 무릎중앙높이 등의 높이항목은 앉은 넓적다리높이를 제외한 11개의 높이 항목이 신뢰구간 99.9%에서 20대의 평균이 30대의 평균보다 크게 나타나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길이항목은 둔부길이, 넓적다리길이의 경우 높이항목과 유사하게 20대가 큰 치수를 나타내었으나 등길이는 30대의 평균이 38.421cm, 20대 평균이 37.943cm으로 30대가 더 길게 나타나( $p < 0.01$ ), 30대 여성이 20대 여성에 비해 키가 작고 하체가 짧은 신체비례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너비항목을 살펴보면 앞품을 제외한 어깨너비, 윗가슴너비, 유두간격 등 7개 항목에서 30대의 평균너비가 20대의 평균너비보다 넓게 나타났고( $p < 0.05$ ), 두께항목은 30대가 가슴두께 21.823cm, 20대가 21.032cm로 가슴두께, 진동두께, 가슴두께, 허리두께, 배두께, 엉덩이두께 등 모든 두께항목이 30대가 20대의 평균두께치수보다 크게 나타나( $p < 0.001$ ) 연령과 두께의 관계가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둘레항목의 경우에도 장만지둘레를 제외한 가슴둘레 평균이 30대의 경우 86.201cm, 20대는 81.782cm였고,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윗팔둘레 등 11개 둘레항목에서도 20대의 둘레치수보다 30대의 둘레치수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p < 0.001$ ). 반면에 엉덩이둘레는  $p < 0.01$ 로 30대의 둘레치수가 20대의 둘레치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총 분석항목의 59%가  $p < 0.001$  수준으로 20대와 30대의 신체항목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30대 여성의 체형은 20대 여성에 비해, 신장이 적으며, 높이항목 및 길이항목이 적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특히 등길이는 30대 여성이 20대에 비해 긴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30대 여성은 너비항목, 두께항목, 둘레항목에서 20대 여성보다 큰 치수를 나타내어, 30대 여성은 20대 여성에 비해 키가 작고, 너비항목과 두께항목이 크며, 둘레치수가 큰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30대를 타겟으로 하는 의복을 30대 여성이 착용했을 시에 너비, 두께, 둘레 항목에서 치수 불만족을 초래할 것을 시사하는 결과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30대 여성 의복의 치수적합성을 위해서는 20대 여성 의복의 size spec 기준설정과는 다른 size spec의 재시가 필요하며, 또한 같은 size spec에서라도 30대 여성 체형의 부분적인 변화로 인한 세부적인 치수항목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여 패턴을 설계하고, 의복을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현행 국내 20대~30대 타겟의 여성복 브랜드가 패턴 설계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대를 타겟으로 치수를 설정한 후, 그레이딩으로 다른 사이즈를 전개하는 방식으로는 30대 여성의 의복 맞춤세에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30대의 체형 변화 항목을 30대의 패턴 설계시 적용하여 20대와 30대의 타겟 마켓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